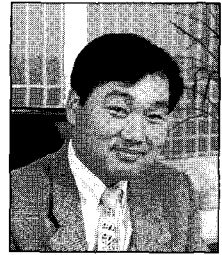


>>>

포장디자인 발전에 초석이 될 터

포장 전문 지식 바탕으로



김 기 호
디자인에이스 대표

“먼저 저를 이끌어 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포장기술사 시험의 합격을 통해 전문 포장인으로서 포장 발전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포장기술사 합격에 대한 김기호 디자인에이스 대표의 소감이다.

김기호 대표는 부경대학교 산업디자인 학과를 졸업하고 포장관련 전문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1989년 에이스팩을 설립, 적극적인 포장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설립 당시 기업에서는 포장 디자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 사장은 상호를 디자인 에이스로 변경하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달려온 김 사장은 (사)한국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협회 영남지역 초대 회장과 한국디자인 법인단체 총 연합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김기호 사장은 “포장 디자인을 하려면 포장 재료, 포장 기법, 포장기계, 포장 공학 등 포장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1979년 포장기사 2급, 1988년에는 포장기사 1급을 취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자 하는 포장 기술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호 사장은 이번 기술사 합격을 통해 포장 이론을 디자인에 잘 접목시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 적이며, 친환경적인 포장을 디자인해 국내 상품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포장이 미치는 기업경쟁력 확대와 국가 산업 발전은 물론 환경 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를 홍보, 인식시키고 이를 설계, 적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격을 통해 좀더 전문적인 포장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포장산업에 대해 김기호 사장은 “국내 각 포장산업은 각 분야별로는 선진국 수준이라 하겠으나 이를 통합, 조정하는 거시적인 관점(물류, 환경 등)에서 포장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정책 조언을 통해 포장산업의 발전이 한국상품의 세계진출에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포장기술사 합격으로 “전문 포장인”, “전문 디자이너”로써 국내 포장 디자인의 새로운 발전에 초석이 될 김기호 사장에 기대 해 본다. ☺